

#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중고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on middle and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Min Ha-Yeoung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on middle and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The subjects were 3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two-parent in Keoungbok and whose household income was lower ₩4,000,000.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s alienation was difference. The level of the high school adolescent's alienation was higher than the middle school adolescent's alienation.
- 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s alienation was differed by level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The lower level of income and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the higher level of adolescent's alienation.
- 3) Among the income,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the income was more influential predictor on high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But the income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of middle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 was more influential predictor on middle school-adolescent's alienation.

Key Words :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lienation, income, emotional closeness with father/mother

## I. 문제제기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Holcomb-McCoy, 2004)이나, 여성 한부모 가장(신수아, 육선화, 2001), 노인(유수정, 김현숙, 한규량, 2002)이나 탈북자(이재창, 김영만, 2005) 등 삶의 질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연구가 점증하고 있다. 삶의 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소외 계층의 소외감 연구는 '사회적 비주류가 가지는 심리적 거리

감'이라는 소외감의 사회학적 개념 정의를 고려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여성 한부모 가장 등과 같이 사회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감은 사회 소외 계층이 경험하는 소외감만큼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소외감은 우울, 불안, 공격성, 자살, 학교 이탈과 같은 심리, 사회, 정서적 부적응의 강력한 예측 지표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은숙, 2007; 이은숙, 김정숙, 2004; 이현림, 장미자, 김순미, 2004; Brown, Higgins, &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한 것임.

자료수집에 도움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경화 교수와 교육학과 이윤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Corresponding author: Min, Ha-Yeoung

Tel: 053) 850-3545, Fax: 053) 850-3545

E-mail: hymin@cu.ac.kr

Paulsen, 2003; Calabrese & Adams, 1990; Heaven & Bester, 2001; Trusty, & Dooley-Dickey, 1993).

일반적으로 소외감은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만족과 미성숙한 자아정체감의 결과의 하나(Calabrese, 1987)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과 함께 자율성 추구로 인한 분리-개별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발달적 위기 상황에서 혼란과 좌절에 의한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소외감은 일반적으로 무력감, 무규범, 무의미,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Lacourse, Villeneuve, & Claes, 2003; Seeman, 1983). 무력감, 무규범 또는 무의미의 소외 상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통 가치와 타인으로부터 유리감을 갖게 하고 사회활동의 위축과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부적응 및 성인기 이후 발달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소외감이 지니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예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소외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확보 측면에서 조기 예방되고 관리되어야 할 심리정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외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외감을 연구한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부모-자녀간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소외감을 이해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모 지침용 자료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소외감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의 소외감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될 부모 지침용 또는 교육용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부모와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래와의 시간이 증가(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하지만, 청소년기 동안 경험하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예측자로 알려질 만큼(Steinberg & Silk, 2002)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녀의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용 자료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의 소외감 관리에 도움이 될 부모 지침용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우선 의미를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1318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이 청소년을 대표하는 보편적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318세대 표현에서와 같이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대표하는 집단이지만 청소년이라는 범주 안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함께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소외감이

발달하기 쉽다는 연구결과(Calabrese, 1987)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아청, 1996)를 고려해 볼 때, 자아정체감 발달 상 차이를 보이는 중고등학생은 소외감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학생 시기는 자아정체 탐색의 시작 단계라 한다면 고등학생은 자아정체 탐색에 있어 보다 진지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자아정체 형성 과정의 질적 차이는 소외감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중학생(이현립 등, 2004), 고등학생(이은숙, 2007; 이은숙, 김정숙, 2004), 대학생(강완숙, 유안진, 2000)을 독립된 집단으로 선정하여 각각 연구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을 함께 접근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좌절감과 함께 소외감을 증진시키는 위기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 계층의 아동이 소외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청소년의 소외감이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윤나리, 김영란, 2004; Holcomb-McCoy, 2004)는 빈곤과 같은 낮은 소득이 소외감을 높이는 요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과 소외감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로부터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소득이 청소년의 소외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게서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라는 것이 물질 확보에 필요한 1차적 수단이며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Richins & Dawson, 1992)이 높으며(조영희, 1996) 유명상품 선호 등 과소비성향이 큼(김혜인, 이승신, 2003; 홍은실, 2006)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가정의 낮은 소득은 물질의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나 과소비의 욕구충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 요구가 현실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반복되고 누적된 사회적 자원의 접근 제한과 이로 인한 좌절 경험은 무기력감과 함께 고등학생의 소외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 중위소득 계층이하 청소년의 경우 소외감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미치는 청소년의 소외감 연구는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층 이하 청소년에게 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소득과 청소년 소외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외감은 배척이나 외로움 등 극단적 독립(Dean, 1961)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의존감, 연결감, 일체감의 부족은 소외감을 발달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추해 생각해 보면 상호의존감이나 연결감의 느낌은 소외감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상호의존감이나 연결감의 원천인 부모와의 관계는 또래 관계가 강조되는 중고등학생(박영신, 김의철 2004)이라 할지라도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소외감 발달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의미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동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자율성 추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소원해지는 대학생의 경우도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소외감이 영향받고 있다는 점(강완숙, 유안진, 2000)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관계있다는 점(이시은, 이재창, 2007)을 생각해 볼 때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중학생(박영신, 김의철, 2004)의 경우 또래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청소년 자신의 소외감 지각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됨으로 아버지와의 정서적 친밀감보다 청소년의 소외감 발달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외감 발달에 미치는 부나 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강완숙, 유안진, 2000).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을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소외감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이은숙, 2007; 이은숙, 김정숙, 2004; 이현립 등, 2004; Brown et al, 2003; Heaven & Bester, 2001; Trusty, & Dooley-Dickey, 1993)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발달단계가 다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 특

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편이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관한 부모 교육용 프로그램을 발달 특성에 맞게 구안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학교 청소년과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이 각각 소득과 부/모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소외감 특성을 독립적으로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을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한 부모용 지침 자료의 기초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이 연구는 소득이 낮을 때 심리적 소외감이 크다는 점(Holcomb-McCoy, 2004)을 토대로 서민층 청소년의 소외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 차원에서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대상을 200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98만원(통계청, 2007)을 참조하여 월평균 소득 400만원 미만의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저소득 지역내 종교교에서 자료를 유의표집하였다. 한편 청소년 소외감에 대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영향력을 부와 모 각각 독립적으로 보기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인 종교교 청소년 327명 중 중학생은 169명(51.7%), 고등학생은 158명(48.3%)이었으며, 남학생은 149명(45.6%), 여학생 178명(54.4%)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84(49.7%)명, 여학생은 85(50.3%)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65(41.1%)명, 여학생은 93(58.9%)명이었다.

## 2. 조사도구

### 1) 청소년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애정, 정서적 위안과 지지 정도(강완숙, 유안진, 2000)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강완숙과 유안진(2000)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 '아버지(어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4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되었다. 응답가능 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4점에서 16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아버지 .88, 어머니 .85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소외감 척도

Seeman(1972)의 소외개념을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강완숙과 유안진(2000)의 소외감 측정 척도 중 무력감(10문항), 무의미(10문항), 규범상실(10문항), 사회적 고립(10문항), 자기 유리(10문항)에 관한 문항을 중학교 청소년에게 맞게 보완하여 소외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1) 무력감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결과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는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내 인생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운명에 달려 있다' 등의 10문항이 포함되었다. 2) 무의미란 행동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다' 등의 10문항이 포함되었다. 3) 규범 상실이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나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 사회적 고립이란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사회로부터 거부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속이 상할 때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일이 별로 없다' 등의 10문항이 포함되었다. 5) 자기 유리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낀 적이 없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는 없다.' 등의 10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러는 편이다(4점)'의 4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응답가능 범위는 50점에서 200점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심리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 자기 고립의 하위영역은 각각 .81, .86, .82, .85, .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외감의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3. 조사 절차

소외감 문제에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청소년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저소득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진 질문지 조사는 학교로부터 자료 수집을 허가받은 후,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받은 각급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응답된 질문지는 응답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양부모 가정이 아닌 자료, 월평균소득 400만원 이상인 자료 및 부실 기재된 자료 등은 제외하였다. 자료분석에 최종 사용된 자료는 327부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Scheffe'사후 검증, Pearson의 상관계수 그리고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연구문제 1)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청소년은 중학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나타냈다( $t = -15.50, p < .001$ ). 소외감의 하위 영역인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적 고립 그리고 자아고립 영역 모두에서 고등학교 청소년은 중학교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평균차이

변인구분	소외감 하위 영역					소외감 총계
	무력감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고립	자아고립	
중학생 (n=169)	18.18 (4.77)	18.30 (5.56)	16.65 (4.23)	17.97 (4.55)	19.60 (4.74)	90.69 (20.94)
고등학생 (n=158)	21.54 (5.12)	21.82 (6.05)	20.46 (5.01)	20.11 (5.27)	22.27 (4.82)	106.18 (21.57)
t 검증	-3.36***	-3.52***	-3.81***	-2.14***	-2.67***	-15.50***

주) \*\*\*p<.001

이러한 연구분석 결과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중학교 청소년과 고등학교 청소년을 구분지어 독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차이**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집단구분하였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과 200-400만원 미만 소득으로 집단구분 하였다. 조사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98만원 점을 토

대로 400만원 미만 가계소득 청소년만을 자료 수집한 점과 임대국민주택 신청 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200만원 미만(200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98만원의 약 50%)인 가구와 이상인 가구로 소득수준을 구분하였다. 한편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각각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11.18(2.94), 12.38(2.5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평균은 각각 10.24(3.08), 12.06(2.65)로 나타났다.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표 2>에서 나타나듯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표 2>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른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평균차이

변인	변인 구분	소외감 하위유형					소외감 총계
		무력감	무의미	규범 상실	사회 고립	자아 고립	
소득	200만원미만 (n=59)	19.69 (4.94)	20.22 (6.39)	17.06 (4.02)	19.49 (4.75)	20.74 (5.02)	97.22 (21.91)
	200-400만원미만 (n=110)	17.3636 (4.48)	17.2636 (4.77)	16.4182 (4.33)	17.1545 (4.24)	18.9818 (4.48)	87.1818 (19.61)
	t값	3.11**	3.40***	.95	3.27***	2.34*	3.04***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	낮은 집단 (n=44)	20.86 a (4.16)	21.34 a (5.44)	18.18 a (3.85)	20.66 a (5.20)	22.70 a (4.52)	103.75 a (19.60)
	중간 집단 (n=80)	18.04 b (4.33)	18.19 b (5.27)	16.79 a (4.24)	17.89 b (3.88)	19.29 b (4.39)	90.19 b (19.13)
	높은 집단 (n=45)	15.80 c (4.81)	15.51 c (4.66)	14.89 b (3.98)	15.49 c (3.49)	17.11 c (3.88)	78.80 c (18.03)
	F값(df) /Scheffe'	14.66*** (2,166)	14.20*** (2,166)	7.35*** (2,166)	17.13*** (2,166)	19.24*** (2,166)	19.29*** (2,166)
	낮은 집단 (n=46)	20.98 a (4.57)	21.22 a (5.63)	18.11 a (3.83)	20.91 a (5.05)	22.57 a (4.44)	103.78 a (20.47)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중간 집단 (n=70)	18.11 b (4.07)	17.97 b (4.77)	17.09 a (4.23)	17.90 b (3.57)	19.14 b (3.97)	90.21 b (17.35)
	높은 집단 (n=53)	15.83 c (4.56)	16.19 b (5.47)	14.79 b (3.94)	15.51 c (3.76)	17.62 b (4.74)	79.94 c (19.65)
	F값(df) /Scheffe'	17.11*** (2,166)	11.58*** (2,166)	9.01*** (2,166)	21.6*** (2,166)	6.51*** (2,166)	19.52*** (2,161)

주1) 임대국민주택 신청 자격을 참조하여 2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소득수준을 구분함.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낮은, 중간, 높은 집단으로 구분함.

주2) \*p<.05, \*\*p<.01, \*\*\*p<.001

주3) a, b, c는 Scheffe' 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났다. 2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은 200-4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4, p<.001$ ). 한편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집단은 중간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66)=19.29, p<.001$ ). 이는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집단은 중간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61)=19.52, p<.001$ ).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표 3>에서 나타나듯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은 200-4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2, p<.01$ ). 한편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집단은 중간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55)=8.24, p<.001$ ). 한편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집단은 중간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낮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2, 161)=7.68, p<.001$ ).

**연구문제 3)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상대적 설명력**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부/모의 정서적 친밀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과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고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중회귀분석 전 중고등학교 청소년 각각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나타나듯 중학교 청소년의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는  $r=.21-.67$  고등학교 청소년의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는  $r=.16-.49$  범위를 나타냈다. 한편 단계적 중회귀분석 시 분산팽창계수인 VIF를 살펴 본 결과 중학교 청소년은 1.06-1.84, 고등학교 청소년은 1.03-1.32 범위의 VIF 계수를 나타냈다. 독립변인간 상관관계가 .80을 넘지 않으며(김석

<표 3>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른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평균차이

변인	변인구분	소외감 하위 유형					소외감 총계
		무력감	무의미	규범 상실	사회 고립	자아 고립	
소득	200만원미만 (n=72)	22.68 (5.18)	22.78 (5.92)	21.13 (5.30)	21.21 (5.70)	23.39 (4.72)	111.18 (21.23)
	200-400만원미만 (n=86)	20.58 (4.90)	21.01 (6.08)	19.90 (4.70)	19.19 (4.71)	21.33 (4.71)	102.00 (21.07)
	t값	2.61**	1.84	1.55	2.44*	2.74**	2.72**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	낮은 집단 (n=46)	23.41 a (5.10)	23.87 a (6.40)	21.46 (5.15)	21.61 a (5.44)	23.70 a (4.68)	114.04 a (22.01)
	중간 집단 (n=55)	21.49 ab (5.34)	22.18 ab (5.58)	20.16 (4.76)	21.53 a (5.68)	22.87 a (5.10)	108.24 a (20.92)
	높은 집단 (n=57)	20.07 b (4.48)	19.81 b (5.65)	19.93 (5.09)	17.53 b (3.51)	20.54 b (4.15)	97.86 b (19.19)
	F값(df) /Scheffe'	5.75** (2,155)	6.28** (2,155)	1.33 (2,155)	12.24*** (2,155)	6.63** (2,155)	8.24*** (2,155)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낮은 집단 (n=62)	22.21 (5.43)	23.45 a (6.52)	21.00 (5.32)	21.84 a (5.72)	23.61 a (5.32)	112.11 a (22.64)
	중간 집단 (n=49)	21.98 (5.14)	21.86 ab (5.32)	20.35 (4.71)	20.45 a (5.05)	22.08 ab (3.97)	106.71ab (20.46)
	높은 집단 (n=47)	20.19 (4.49)	19.62 b (5.53)	19.85 (4.90)	17.47 b (3.68)	20.69 b (4.48)	97.81 b (18.78)
	F값(df) /Scheffe'	2.38 (2,155)	6.91*** (2,155)	.94 (2,155)	12.51*** (2,155)	6.33** (2,155)	7.68*** (2,155)

주1) 임대국민주택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2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소득수준을 집단 구분함.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낮은, 중간, 높은 집단으로 구분함.  
주2) \* $p<.05$ , \*\* $p<.01$ , \*\*\* $p<.001$   
주3) a, b는 Scheffe' 검증 결과로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4>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독립변인간 상관관계

변인	중학교 청소년(n=169)			고등학교 청소년(n=169)		
	소득	부와의 친밀감	모와의 친밀감	소득	부와의 친밀감	모와의 친밀감
소득						
부와의 친밀감	.21**			.16*		
모와의 친밀감	.22**	.67***		.10	.4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단계		중학교 청소년 소외감(n=169)		F값(df)	R <sup>2</sup>	adjR <sup>2</sup>	ΔR <sup>2</sup>
		B(SE)	β				
1단계	상수	128.37(5.62)		47.96*** (1,167)	.22	.22	.22
	부와의 친밀감	-3.37(.49)	-.47***				
2단계	상수	139.46(7.02)		28.07*** (2,166)	.25	.24	.03
	부와의 친밀감	-2.26(.65)	-.32***				
	모와의 친밀감	-1.90(.74)	-.23*				

주) \* $p < .05$ , \*\*\* $p < .001$

우, 최용석, 2001) VIF 계수가 10이하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중회귀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양병화, 2002)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 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부( $\beta = -.32, p < .001$ )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모( $\beta = -.23, p < .05$ )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서만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소득에 의한 설명력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변인 통제 시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2단계  $\beta$ 값을 비교해 볼 때 중학교 청소년의 경우 소외감은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beta = -.23$ )보다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 $\beta = -.32$ )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청소년 소외감의 경우 중학교 청소년과 달리 소득( $\beta = -.21, p < .01$ ) 및 부( $\beta = -.19, p < .05$ )/모( $\beta = -.19, p < .05$ )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모두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beta$ 값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 및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설명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beta = -.19$ )보다 소득( $\beta = -.21$ )이 약간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6>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단계		고등학교 청소년 소외감(n=169)		F값(df)	R <sup>2</sup>	adjR <sup>2</sup>	ΔR <sup>2</sup>
		B(SE)	β				
1단계	상수	129.06(5.68)		17.70*** (1,156)	.10	.10	.10
	부와의 친밀감	-2.23(.53)	-.32***				
2단계	상수	140.13(6.75)		13.43*** (2,155)	.15	.14	.05
	부와의 친밀감	-1.99(.53)	-.29***				
	소득	-5.13(1.78)	-.22**				
3단계	상수	151.96(8.45)		10.92*** (3,154)	.18	.16	.03
	부와의 친밀감	-1.34(.59)	-.19*				
	소득	-5.02(1.76)	-.21**				
	모와의 친밀감	-1.56(.69)	-.1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서민층 가정의 청소년 327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차이와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및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간의 관계와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학교 청소년과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고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외감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문조, 권이중, 김선업, 1994)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이 무기력, 무의미, 규범상실, 사회고립 및 자아고립 등 소외감의 전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을 청소년이라는 범주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접근, 지도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 청소년과 고등학교 청소년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낮을 때 보다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외감이 소득이나 가족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강완숙, 유안진, 2000; 신수아, 옥선화, 2001; Holcomb-McCoy, 2004)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상대적 영향력은 고등학교 청소년과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 청소년의 경우 (연구문제 2)에서 처럼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통제될 때 그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수준이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으나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개입될 경우 소득의 문제는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의 물질적 측면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초기에 지도되거나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중학교 청소년의 소외감과 달리 소득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모두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소득이 낮을 때 높아지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개입된다해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의 문제가 고등학생의 소외감 발달에 의미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학생의 소외감 발달과 달리 고등학생의 소외감 발달에서 소득의 영향이 의미있는 것은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물질주의적 가치추구 경향(조영희, 1994)뿐 아니라 과소비성향이 크다(홍은실, 2003)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볼 수 있다. 소외감이 물질만능의 현대 사회 안에서 자생한 부산물(Fromm, 1976)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물질주의적 가치추구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고등학생에게 물질획득과 과소비의 가장 강력한 자원인 소득의 결핍은 무의미나 사회고립 등의 소외감을 발달시키는 의미있는 환경 요인으로 기능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나 탈소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서적 친밀감 증진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향상 외에 소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심리적 또는 인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은 대학생의 소외감을 연구한 강완숙과 유안진의 연구(2000)처럼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보다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 소외감의 경우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설명력이 큰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소외감이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보다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좀 더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분석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의 경우 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평균(표준편차) 12.38(2.56)이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평균(표준편차) 11.18(2.94)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와의 정서적 친밀감에 의해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 외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로부터 경험되는 추가적인 친밀감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내 연결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정서적이며 표현적 역할자인 어머니와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친밀감을 생계유지자이면서 도구적 역할자인 아버지와 공감한다는 것이 자아정체감 추구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추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본격화되지 않은 중학교 청소년에게 보다 의미있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지지적일 때 가장 긍정적인 발달 효과를 낸다고 지적한 Amato와 Rejac(199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심리적 지지와 애정은 어머니에 비해 그 양이 많지 않다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의 경우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모두 또래 집단과의 심리적 친밀감이 확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여전히 청소년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칠만큼 의미있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연결감, 소속감이 중요함을 고려해 볼 때,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기본적인 연결감과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활동에 부/모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극복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는 더욱 더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자녀의 소외감 예방을 위한 부모 지침용 자료를 획득하고자 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보다 확장되는 또래 관계나 학업이나 입시 등 사회적 기대나 압력과 관련시켜 학교 환경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외감을 집중 조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의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 소외감이 보다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모가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자녀의 소외감을 청소년 소외감이라는 단일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중학교 청소년기 자녀와 고등학교 청소년기 자녀의 소외감을 구분해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제안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소외감, 소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 참 고 문 헌

강완숙, 유안진 (2000) 지각된 부/모 가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8), 69-84.  
 김문조, 권이중, 김선업 (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세계적 접근. 삼성복지재단.  
 김석우, 최용석 (2001) 인과모형의 이해와 응용. 학지사  
 김혜인, 이승신 (2003)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

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45-156.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40-162.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 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신수아,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29-141.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유수정, 김현숙, 한규량 (2002) 재가노인의 신체적 건강,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 치매 및 우울의심노인과 정상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2(3), 115-133.  
 윤나리, 김영란 (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01-113.  
 이서은, 이재창 (2007)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이은숙 (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27(4), 576-585.  
 이은숙, 김정숙 (2004) 고등학생의 소외감과 건강위험행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3), 265-272.  
 이재창, 김영란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41-66.  
 이현립, 장미자, 김순미 (2004) 교우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소외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 연구*, 11(3), 181-198.  
 조영희 (1994) 도시주부의 지출행동 유형. *한국생활과학회지*, 3(1), 33-42.  
 통계청 (2007)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홍은실 (2006)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73-92.  
 Amato, PR, Rejac, SJ (1994) Contact with nonresident parent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5, 191-207.  
 Brown, MR, Higgins, K, Paulsen, K (2003) Adolescent alienation: what is it and what can educators do about it?. *Intervention in School and Crime*, 39(1), 3-9  
 Calabrese, RL (1987) Adolescence: A growth period conducive to alienation. *Adolescence*, 22(88), 929-938.

- Calabrese, RL, Adams, J (1990) Alienation: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98), 435-440.
- Dean, D (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 Fromm, E (1976)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 Heaven, PCL, Bester, CL (2001) Alienation and its psychological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5), 593-598.
- Holcomb-McCoy, C (2004) Alienation: A concept for understanding low-income, urban clients.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3, 188-196.
- Lacourse, E, Villeneuve, M, Claes, M (2003) Theoretical structure of adolescent alienation: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dolescence*, 38(152), 639-650.
- Richins, ML,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Seeman, M (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pp. 467-527). NY: Russel Sage Basic Book.
- Seeman, M (1983) Alienation motifs in contemporary theorizing: The hidden continuity of classic them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71-84.
- Steinberg, L, Silk, JS (2002) Parenting adolescents. In MH Be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Vol 1, pp.103-133). NJ: Lawrence Erlbaum.
- Trusty, J, Dooley-Dickey, K (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6, 232-242.

(2008. 10. 2 접수; 2008. 11. 30 채택)